

**주 일 예 배**

오전 7시  
행복한 교회

1부 오전 7:30 [가정주일] 인도 : 1부 노 단목사  
2부 오전 10:30 2부 강지현목사  
3부 정오 12:00 3부 조승주목사  
4부 오후 2:00 4부 조승주목사

함께찬양 ..... 찬 양 팀  
예배의부름 ..... 인 도 자

\* 찬 송 ..... 찬 559장 ..... 다 함 께

\* 신앙고백 ..... 사도신경 ..... 다 함 께

기 도 ..... 1부 김진현집사

2부 전 환장로

3부 김학봉장로

4부 정세연청년

\* 봉 헌 .....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..... 다 함 께

\* 봉헌기도 ..... 설 교 자

광 고 ..... 설 교 자

성경봉독 ..... **마가복음 10:22, 28-30** (신약 71쪽) ..... 설 교 자

마태복음 8:1-4 (신약 11쪽) ..... 조승주목사

찬 양 ..... “약속 있는 첫 계명” (이근호) ..... 1부 벤엘찬양대

“어머니의 기도” (손경민) ..... 2부 시은찬양대

“예수 사랑하심은” (진선미) ..... 3부 갈릴리찬양대

**말씀선포 ..... 得一得十之道 ..... 남광현목사**

4부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..... 조승주목사

\* 찬 송 ..... (찬송가 94장) ..... 다 함 께

\* 축 도 ..... 설 교 자

\*표는 일어서서

\*\*\*\*\*

다음 주일예배 기도 : 1부 김 해집사 2부 백완기장로 3부 장재천장로

**주 일 저녁 예 배**

위를 바라보는 교회

주일/ 오후 5:30 [아가페 앙상블과 함께] 인도 : 남광현목사  
찬 양 ..... Holy Wave  
성경봉독 ..... **골로새서 3:14** (신약 328쪽) ..... 인 도 자  
말씀선포 ..... **앙상블(Ensemble)의 아름다움 ..... 남광현목사**  
찬 양 ..... 아가페앙상블

\*\*\*\*\*

**得一得十之道**

마가복음 10:22, 28-30

성경에는 신앙이 없는 가족들이 들을 때 불편할 말씀들이 있습니다. “내가 세상을 어떻게 주리  
은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, 딸이  
어머니와,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와 아버지나  
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 
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”(마 10:34-37) 가정의 화목을 최우선으로, 효를 최고의 덕목으로  
여기는 유교적 문화와 한국적 정서에서 이런 말씀은 ‘기독교는 불효(不孝)의 종교’라는 오해에 관한  
심판에서도 보았습니다. 불의한 이득을 기뻐하는 두로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, 곧 내가 취한 재물  
도, 집도, 사람도, 명성도, 생명도 다 거두시리라는 말씀입니다. 하나님을 떠나 욕망을 붙들 때,  
결국 그 하나로 다른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. 주색이나 도박에 빠진 인생만이 아닙니다. 오늘 본  
문 앞에 나오는 한 부자 청년 또한 이를 보여줍니다. “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 
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”(22절) 그는 결국 재물을 붙들고 예수를 등집니다. 그  
러나 그 길은 전부를 잃는 길임을 그는 몰랐습니다.

**1. 得一失十之道 (22-)**

먼저 하나님을 얻고 열(전부)을 잃는 길이 있습니다. 마귀가 미혹하는 길입니다. 아담과 하와  
선악과를 취함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. 최근 새벽예배 때 본 에스겔서 26장의 두로에 관한  
심판에서도 보았습니다. 불의한 이득을 기뻐하는 두로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, 곧 내가 취한 재물  
도, 집도, 사람도, 명성도, 생명도 다 거두시리라는 말씀입니다. 하나님을 떠나 욕망을 붙들 때,  
결국 그 하나로 다른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. 주색이나 도박에 빠진 인생만이 아닙니다. 오늘 본  
문 앞에 나오는 한 부자 청년 또한 이를 보여줍니다. “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 
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”(22절) 그는 결국 재물을 붙들고 예수를 등집니다. 그  
러나 그 길은 전부를 잃는 길임을 그는 몰랐습니다.

**2. 失十得一之道 (28-29)**

열(전부)을 잃고 한 가지를 얻는 길이 있습니다.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그 길을 보여줍니다.  
“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”(28절) 베드로와 안  
드레,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이렇게 응답했습니다. “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 
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”(마 4:22) 이들은 무엇이 중한지를 알았습니다. 바울도 보여줍니다.  
“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...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  
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 
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...”(빌 3:7-9)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잃어라... 주 예수보다  
더 귀한 것은 없네... 전부를 잃는다 해도 한 분 예수를 붙들니다.

**3. 得一得十之道 (30-31)**

그런데 그 길은 버린 열(전부)을 다시 얻는 길임을 오늘 말씀이 알려줍니다. “현세에 있어 집  
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도를 백 배나 받되 박해를 견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  
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”(30절) 그러나 예전과 같은 것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. 더 복된 것으로  
다시 얻는 길입니다. 나를 인하여 가족 전부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. 인가귀도(引家歸  
道)의 복입니다. 곧 사랑하는 가족을 현세만 아닌 내세에서 영원히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. 가  
족에게 줄 최고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. 복음입니다. 그러나 그 과정에는 가족을 버리는 것 같  
은 아픔이 있습니다. 그러나 그것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. 복된 것으로 다시 얻는 것입니다.  
“주 예수를 믿노라 그리하면 나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”(행 16:31)

**새 벽 예 배**

안을 살펴보는 교회

월~금/ 오전 1부 5:00, 2부 6:30 토/ 오전 6:30 인도 : 남광현목사/부교역자  
찬 송 ..... 다 같 이  
성경봉독 ... 월 화 수 목 금 토 ... 다 같 이  
찬 양 ..... 할렐루야찬양대

**말씀선포 ..... 오늘 주시는 말씀과 기도제목 ..... 인 도 자**

**수 요 예 배**

결을 돌아보는 교회

수/ 오후 7:30 인도 : 남광현목사

찬 양 ..... 광성 수 찬양단

기 도 ..... 한효은권사

성경봉독 ..... **마태복음 9:1-13** (신약 13쪽) ..... 다 같 이

찬 양 ..... 로뎀찬양대

**말씀선포 .....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..... 김연수목사**

[다음 주 : 현승미권사]

**금 요 기 도 회**

밖을 내다보는 교회

금/ 오후 8:00 [대하714 기도회] 인도 : 남광현목사

찬 양 ..... Holy Wave

성경봉독 ..... **사도행전 14:19-28** (신약 212쪽) ..... 인 도 자

특 순 ..... 주일 낮 예배위원

**말씀선포 ..... 교회는?(72) 제자를 삼습니다! ..... 남광현목사**

합심기도 ..... **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..... 다 함 께**

[다음 특순 : 새벽, 수요, 금요, 주일저녁예배위원]

\*\*\*\*\*

**사랑방 모임**

☞ 순서 : 인사(포옹)/ 찬양/ 생활나눔/ 기도/ 은혜나눔/ 봉헌/ 축복나눔/ 주기도문

■ **생활나눔**: 서로 포용하면서 인사를 나누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나눕니다.

■ **은혜나눔**: 주일 말씀을 들으면서 알게 된 하나님, 받은 은혜와 감동을 나눕니다.

① 어떤 잘못된 선택으로 많은 것을 잃은 실수나 실패의 경험이 있다면?

②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기까지 가정이나 친구들, 직장에서 어떤 아픔이나 갈등의 과정을 겪은 분이 있다면, 그 경험을 나눠주실 수 있겠습니까?

③ 갈등과 핍박의 과정을 넘어 이제는 가족 전부를, 또는 일부를 하나님께로 인도한 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. 지해도 얻고, 격려도 받고 싶습니다.

■ **축복나눔**: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. 아픈 교우와 전도대상자를 위해,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위해, 광야선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해...

